

< JDC 이음일자리 사업 수기공모 응모작 >

- 거대한 자연의 변화, 오묘한 생명의 신비 -

(새별오름을 오르면서)

2조 오름매니저 김 선 형

처음에 새별오름으로 일할 곳이 배정되었을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무 한그루 없는 민둥산같은 오름을 올라다보면서 어떻게 이곳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생각은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찾아와서 지루하지 않았고, 조금은 재미있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배정된 탐방시간이 30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주 도내의 오름동호인들은 물론이고, 타시도의 관광객을 비롯하여 나이든 노년층까지 찾는 명소이며, 그래서인지 이것 저것을 물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나이 많은 남자 분이 혼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 아직 아침 식사를 안했다면서 어디 가까운 곳에서 식사 할 수 없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친구들과 골프 모임을 갖는데, 오후 2시가 되어야 이곳에서 합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주변에는 식당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마을로 버스를 타서 다녀오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릴없는 시간이어서 운동삼아 정류소까지 같이 가면서 오름에 대한 물음에 답해 드렸는데, 돌아서는 저를 보면서 너무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이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름을 찾으시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으며, 작은 경험이었지만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같이 근무하는 분들에게서 데이트를 잘했느냐는 농담을 들었지만...

어떤 때는 탐방객들이 오름을 오르면서 꽃 이름에 대하여 물어 볼 때가 있습니다. 늘 보던 꽃이라서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리면, '아, 맞다. 그림에서 보았던 꽃이구나!'하시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는 작은 설명이라도 해 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이 뿌듯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 번은 부산에서 오셨다면서 주변의 다른 오름들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해 드려서 얼굴이 빨개지던 일이 생각납니다. 근무하는 새별오름 뿐만이 아니라 멀리 주변의 오름들에 대한 내용과 제주도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번은 대만에서 오셨다는 노부부가 이시돌 목장을 꼭 가보고 싶다면서 그 방법을

물어와서 택시를 저렴한 가격으로 절충하여 불러 드렸는데,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인사를 받을 때에는 오히려 내가 오름에 근무하는 것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무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돈도 벌고, 건강도 벌고하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그려...나도 이런 곳에서 근무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는 부러운 찬사를 보낼 때는 흐뭇함에 가슴이 뻗듯했습니다.

그 외에도 탐방로 주변의 쓰레기나 버려진 물건들을 치우고 있는데 우리를 보는 탐방객들이 오름이 참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는 기쁜 마음이 들어 내가 마치 오름의 주인인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새별오름의 매력에 푹 빠졌나 봅니다. 새별오름은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안개가 낄 때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다가, 순식간에 그 안개가 걷히면서 오름이 떠억하니 앞에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구름과 바람, 비 등이 유난히 자주 나타나는데, 오름 날씨가 변화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위대한 감동을 주는 거대한 장관이 대형 스크린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들불 축제로 모두 타버린 오름 곳곳에서 들풀들과 들꽃들이 피었다 지고, 다음에 가면 또다른 모습으로 나를 매료시킵니다. 작고 여린 한포기의 들풀이지만 실로 오묘한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음 일자리가 계속되어 나의 이 작은 행복이 이어졌으면 하는 욕심을 내어봅니다. 끝으로 저희들에게 이런 경험을 갖도록 본 일자리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신 관계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